

# 팔도강산

2021. 7. 16. (금)

15:00~17:00

전국 각지 청년 백수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니트생활자 × Parti

## ● 공론장 개요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15시~17시

장소 : ZOOM

주최/주관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X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후원 : OSF

사회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다지

## ● 발제내용

### 발제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식생활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1배달? 직접 요리? 야식? 혼밥? 부모님? 한끼에 쓸 수 있는 비용?)

### 발제2.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일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 발제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 발제자 소개

**강원** **쌀나무**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강릉에서, 산이 잘 보이는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집에서 시내 버스 타고 환승없이 한번에 갈 수 있는 바다에서 산책하며 휴식 할 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릉 방문객이 많아져,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 조금은 아쉽습니다.

**경기** **벤자민** 지명은 경기도지만 보통 수도권이라 부르는 내 고장. 버스와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산과 강 보다 아파트와 사람으로 가득 찬 이 곳에서 잠시 휴식중인 백수들 중 한명으로 여기 와있습니다~

- 경상 포도** 전주와 이름이 헷갈리는 도시 진주에 산다. 논과 밭, 멋진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에 살면서 집 안에선 혼자 텃밭거리고 집 밖에선 사람들과 꼼지락 댄다.
- 서울 아롱** 청년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서울에 도약의 발판을 찾으러 왔다. 하지만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 백수 기간이 연장되었다. 설상가상 대출 연체 기록으로 청년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 전라 문어빵** 이름을 열 번쯤 말해줘도 모르는 소도시에서 왔습니다. 소도시의 백수도 과로할 수 있습니다.
- 제주 이조기** 제주바다와 올레길을 마당 삼아 살고 있다.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으로 오일장, 지역마켓에서 제주산 식재료를 찾아 먹기 시작했고, 가끔 채집도 한다. 더우면 바다에 들어가고 선선하거나 노을이 멋진 날엔 산책을 나가며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려고 노력 중이다. 백수생활이 아직 어색하다.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길고양이 밥주기이다.
- 충청 비누** 가끔 주변 이웃들에게 상추와 과일을 선물 받는 동네에 살고 있다. 심심할 땐 마실을 나가, 지역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 발제2.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일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 **벤자민** : 지금 하고 있는게 웹툰 작가를 지망 중이라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음. 글을 쓰고 있는데 별이가 생겨서 한끼 더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이 인근에는 없고 부천까지 나가야 하다 보니 왕복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도보로 갈 수 있는 인근 카페를 찾아다님
- **이조기** : 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혼자 있을 때는 티비를 보거나 멍 때리면서 지역 사이트를 확인하기도 함. 밖에 나가면 돈이 들기 때문에 밖에는 잘 안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2,3일에 한 번씩은 가족과 나가서 올레길에 산책을 하기도 함. 동네 고양이 밥 챙겨 주기도 하고, 돈을 안 쓰면서도 자연에 가까울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함. 오래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백수인 채로 제주도로 이주함. 뭐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

- **비누** : 집에 많이 있는 편임 원래도 집순이 인데 서울에 작은 집에 살 때는 답답해서 밖에 자주 나가기도 했는데 충주는 집이 크니까 집에서만 보내도 괜찮은 것 같음.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크다 보니 행동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 취미생활로 서예를 하고 있는데 서실을 갈 때 외출을 하고 충주시에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인터뷰 일정이 있을 때 나가기도 함.
- **문어빵** : 부모님이 일찍 나가셔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편임. 쓸데 없는 거 하는거 좋아해서 리스트를 적어서 . 그림 그리기, 흥미로운 어플 있으면 알고리즘을 짜보고, 정리하기를 해보고, 선물하기를 좋아해서 친구들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달을 기획하고 이벤트를 열어 주기도 함. 본업은 없는데 사이드프로젝트가 많은 편임. 자소서 쓰기 싫어서 상황을 만들어서 쓰거나 편지도 자주 쓰고 또 실험도 자주함. 예를 들면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락스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나만의 실험을 진행. 집에 있으면 눕고 싶고 영상만 보고 그래서 일단 나가서 뭐든 해보려고 하고. 하루에 한번은 운동 하려고 함
- **쌀나무** : 3월에 단기적으로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매일 출근하며, 매우 규칙적인 시간에 맞춰 생활할 것 같았는데, 사무실 출근, 재택 업무, 외근 업무가 섞여 있어 생각과는 다름.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생활 패턴을 지키기가 어려움. 낮에 만날 수 있는 친구랑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강릉 시내를 걷기도 하고. 코로나 전에는 도서관 가서 시간 보낼 때도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고, 강릉에도 청년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생겨서 매일 간다고 했을 때 매일 스벅가는 비용과 비슷해서 유료로 썼다가 이용하다 보니 무료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안 가게 되었음.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활동범위가 오히려 적어지는 부분이 있음. 익명성을 지키고 싶는데 애매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불편해짐.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늘 배치시간표를 확인하고 다녀야 하다 보니 차 없는 청년들은 어디를 다니기가 불편함
- **아퐁** : 요즘 하루 중에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쌓아 둔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보내고 있음. 이제 혼자 지내는 게 지루해지기 시작한 것 같음. 본가에서 생활할 때는

밖에 많이 왔다갔다했는데, 교통비가 많이 나왔음. 10시가 넘으면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서울에 와서 오히려 고립감이 심함. 서울에 청년센터가 자치구마다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책을 읽거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가기도 하고. 청년지원 매니저에게 상담을 지원하면 한시간 정도 받을 수 있음. 근데 스스로 찾아보는 정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 지나다가 지역에서 연극을 한다고 해서 찾아가보고 주민들과 주1회 활동을 하고 있음. 로컬단위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낌. 정기적으로 누군갈 만나서 소통하고 교감하는 일상 감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음. 자기이해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음.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건 재미를 덜 느끼고 줌으로 하다 보니 탄jit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포도:** 모아둔 돈을 까먹으면서 가끔 단기 알바를 함. 주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유럽의 시차를 따르는 몸을 가졌으며 매번 패턴을 바꿔보려 하지만 실패함. 집에선 책을 읽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온갖sns를 탐험함. 가끔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요리함. 설거지와 저녁밥을 하고. 영어, 한국서, 컴퓨터 공부를 깔 짝이고, 취업지원을 위한 자소서 쓰는 데 시간을 보내기도 함. 요즘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늘어나서 현재는 청각장애인 자막해설 수업을 듣고 있음.
- 면접을 보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책을 빌리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집 밖을 나섬.

- .